



2019

유네스코 ESD 정책 포럼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 11. 29 (금) 13:30-17:30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2019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포럼 :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

유네스코 ESD 정책 포럼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 11. 29 (금) 14:00-17:30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유네스코 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 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16일

목 차

I. 행사 세부일정	1
II. 행사 개요	2
III. 참가자 소개	4
IV. 발표 및 토론자료	
세션 1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동향 소개	7
■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오혜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세션 2 – 기조강연	13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 (권기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	
세션 3 – 주제 발표	39
■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재영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국가환경교육센터장)	
■ ESD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조건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세션 4 – 종합토론	57
좌장: 이선경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청주교육대 과학교육과 교수	
■ 학교 - 안재정 부천 송내고등학교 교사	
■ GAP 파트너 기관(PN5) - 박수연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	
■ 지역사회 -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 교육청 -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부록]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I. 행사 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2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4:20-14:30	기념사진 촬영	
14:30-14:40	ESD 동향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오혜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14:40-15:10	기조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 (권기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
15:10-15:4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재영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환경교육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D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조건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5:40-16:00	휴식	
16:00-17:20	종합토론	<p>좌장: 이선경 ESD한국위원회 위원장 / 청주교육대 과학교육과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재정 부천 송내고등학교 교사 • GAP 파트너 기관(PN5) 박수연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 • 지역사회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 교육청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17:20-17:30	폐회	

II. 행사 개요

□ 추진 배경

-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2016-2030년)가,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SDG4-교육2030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들 목표 중 교육이 단일 목표(SDG4)인 동시에 SDGs 전체의 달성을 위한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SDGs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요구함. 유네스코가 선도 기관(lead agency)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또한 SDG4 뿐만 아니라 SDGs 목표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음.
- 올해는 ESD에 있어 중요한 시기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Global Action Programme, GAP, 2015-2019년)의 마무리와 함께, 차기 실천 프로그램(ESD for 2030, 2020-2030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식 런칭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 수립할 예정임.
- 한국의 경우 특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ESD 분야 전문위원회인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이하 ESD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내 ESD 관련 사항이 반영·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개진되어 옴. 더불어 2000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는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 정책 및 계획의 총괄 및 실천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2018년에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SDGs를 이행하고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한 바 있음.

* ESD한국위원회 개요

- 2009년 8월 설립(「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규정」에 의거)
- 목적: ESD에 대한 효율적 참여, 국내 차원의 관련 인식 확산 및 사업·활동 활성화
- 위원: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정부 부처, 기관/단체, 개인 전문가 등 20인 이내
- ※ 현 5대 위원(2018. 7. 1 - 2020. 6. 30): 이선경 위원장(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등 17인
- 주요내용: 정기회의(연 2회) 개최, 위원의 ESD 활동 지원,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 심의 등

- ESD for 2030의 이행 체계와 관련해 유네스코에서는 GAP의 기존 5개 핵심 활동영역(정책 반영, 학습 및 훈련 환경 혁신, 교육자, 청소년, 지역사회)은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공식 이니셔티브(Nationwid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를 구축해 국가 단위로 ESD를 증진할 계획임.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선발된 유관 분야 핵심 파트너들 간 네트워킹(Networking of key partners, NKEP)을 별도로 구축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전 세계 ESD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 포럼 개요

- 행사명: 2019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포럼
- 일시: 2019. 11. 29 (금) / 14:00-17:30
 - ※ 참가자 등록시간: 13:30-14:00
-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 참가자: ESD한국위원회 위원, 국내 ESD 및 SDGs 전문가,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포함 한위 ESD 사업/활동 관계자 등
- 주제: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주요내용
 - ESD for 2030 체계 수립 및 이행 준비에 대한 국제사회 최신 동향 공유
 - ESD for 2030 국가 이니셔티브 구축 관련 한국 차원의 정책적 준비 및 운영 체계 수립 방안 논의
 - ESD GAP 참여기관 등 국내 ESD 이행 핵심 주체별 활동 내용 공유 및 제언
- 기대 효과
 - ESD for 2030 전략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국내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협의 및 실천 의지 고양
 - 향후 국내 ESD for 2030 이니셔티브 구축 및 운영 시 포럼 결과 참고/반영

Ⅲ. 참가자 소개

개회사/축사



김광호 사무총장

개회사
<p>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전문원, 교육부 교육정책과 과장, 주OECD 대표부 참사관,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 전문관 등 오랜 기간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다.</p>

기조강연



권기태 위원장

기조강연
<p>1996년 환경과공해연구회를 시작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소속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들고, 기본전략을 이행했다. 희망제작소에서 부소장, 소장권한대행을 지냈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정책을 연구해 왔다. 현재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으로 법제도 개선, SDG추진, 인식(교육)확산 등을 맡고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이자 사회혁신연구소 대표이다.</p>

주제발표



이재영 교수

주제발표
<p>이재영 교수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환경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혁신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사건중심 환경탐구,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등이 있다.</p>



성열관 교수

주제발표

경희대학교 교수이며,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위스콘신대학교(미국)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Curriculum & Instruction)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호모에코노미쿠스 시대의 교육(문음사, 2004),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교실사회학 관점(학이시습, 2018)이 있다. 공저서에 The State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Routledge)가 있으며, 최근에는 The Strong State and Curriculum Reform(Routledge)과 Understanding PISA's Attractiveness(Bloomsbury) 집필에 챗터 저자로 참여하였다. 《Curriculum Inquiry》, 《Comparative Education》, 《Oxford Review of Education》 등 세계적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실었다.

종합토론



이선경 위원장

종합토론 - 좌장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있으며,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전략 개발에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ESD 영역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교육 및 환경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교육, 과학교육 영역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역량, 교사교육, 학교전체적 접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중일환경교육네트워크(TEEN), 환경과학교이니셔티브(ENS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사교육네트워크(INTEI)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종합토론 - 패널



안재정 교사

2004년부터 경기도에서 환경교사로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환경교육 공부를 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송내고등학교에서 ESD 교과중점 학교, 꿈꾸는 환경학교 등의 사업을 바탕으로 학교 환경교육과 ESD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다. '미래과학 환경을 부탁해',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등 청소년 환경 교양서 등을 집필했으며,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박수연 팀장

종합토론 - 패널

2011년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부터 교육사업 담당 PD(프로그램 디자이너)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교육사업팀 팀장으로 통영RCE, 세자트라숲의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보다 문화적 맥락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보고자 교육인류학을 더 공부했습니다. 타문화에서의 자원활동 경험이란 사람에게 주는 전환적 경험을 연구하면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험이 주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1년, 태어나고 자라온 대도시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 통영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작고 귀한 경험적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현수 위원장

종합토론 - 패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교육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손동빈 장학관

종합토론 - 패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이며,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부소장직을 맡았으며, 당산중, 대영중, 영남중, 영원중, 신도림중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저서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 ‘혁신학교, 한국교육의 미래를 열다’ 가 있다.

IV. 발표 및 토론 자료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ESD) 동향 소개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for 2030, 2020-2030)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2019. 11. 29 (금)



Post-GAP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 추진 현황

제72차 유엔총회(2017)

- 유네스코, ESD 선도기관 역할 재확인
- ESD = SDGs 달성의 필수 요소

제204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8)

- Post-GAP 체계 구축 제안

범세계적 협의과정(2016-2018)

- 회의, 온라인 자문 등

제20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9)

- ESD for 2030(2020-2030) 기획안 채택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
제74차 유엔총회(2019)

- ESD for 2030 최종 승인

ESD 국제회의(2020, 독일 베를린)

- ESD for 2030 공식 런칭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교육 분과회의(2019. 11. 14-16)



[206EX] ESD GAP(2015-2019)의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

<p>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우선 활동영역(Priority Action Areas)* 가운데 4개 영역(정책, 학습 환경, 교육자, 지역사회)에서 목표 달성 * 정책(PN1), 학습 환경(PN2), 교육자(PN3), 청소년(PN4), 지역사회(PN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PN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PN3), 통영RCE(PN5) • GAP 파트너 네트워크 내 상호 교류 및 지원 • (비)형식교육 대상자(2,600만 명) 대상 ESD 실시, 관련 프로젝트 기획 • ESD 교육가 200만 명 대상 훈련 및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료 조정
<p>개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PN 파트너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필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정부 주도 하의 ESD 가시성 증대 필요 • 기타: 관련 모금활동 및 연구에 대한 투자 증대, 모니터링/평가 필요

'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

○ 목표: SDG4-교육2030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반의 이행에 ESD가 기여

○ GAP과의 비교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의 5개 우선 실천영역(PN) 유지 • 글로벌 네트워크 • ESD 국제상(유네스코-일본 ESD상) 유지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달성에 대한 ESD의 기여 • 회원국별 이니셔티브 구축(영역별 파트너 네트워크 단일화) • 데이터 수집, 과정/트렌드/최신발전 현황 모니터링

'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계속)

○ 3가지 핵심전략

혁신적 실천 (transformative action)	<p><u>지속가능발전의 증진을 위한 학습자별 인식 혁신 강화</u> (복잡다단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개선 의지 함양, 비판적 사고 및 분석, 공감 및 연대 증진 등)</p>
구조적 변화 (structural changes)	<p><u>'지속불가능한 발전'의 요인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 및 해결 방안 마련</u>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간 균형, 각기 다른 일상생활 내 도시/주거/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등)</p>
미래 기술 활용 (technological future)	<p><u>지속가능발전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발전된 최신 기술 활용</u> (녹색 기술, 첨단 기술과 관련된 민간/기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p>

'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계속)

○ 유네스코의 역할

국가적 차원	<p>ESD for 2030 국가 이니셔티브(NAMSI, Nationwid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구축 독려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기반한 국가 이니셔티브 구축 필수 • 국가 이니셔티브는 (비)정부, 또는 두 가지 성격 모두를 지닌 주체가 구축 가능 • 이니셔티브 구축/운영 관련 국가별 자원 마련 • 국가별 이니셔티브 구축을 위한 대륙별 회의(regional information meeting, 2020-2021) 개최 예정
국제적 차원	<p>핵심 파트너 간 네트워킹(NKEP, Networking of key partn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선발된 유관 분야 파트너들 간 네트워킹 • 2년 단위 네트워킹 회의 개최
기타	모니터링

'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계속)

○ 향후 ESD for 2030 추진계획(안)

시기	세부내용	비고
2020년	공식 런칭을 위한 유네스코 ESD 국제회의	
2020-2021년	대륙별 준비회의	제1회 국제 네트워킹 회의 (2021년)
2022-2024년	ESD for 2030 이행	제2회 국제 네트워킹 회의 (2023년)
2025년	이행 중간 점검	
2026-2029년	이행 강화	제4회 국제 네트워킹 회의 (2027년) 제5회 국제 네트워킹 회의 (2029년)
2030년	이행 최종 점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

권기태(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

2019. 11.29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

순서

I. 미래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ESD

II.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현황

III.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교육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 현황

IV.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V. 다시 생각해보는 ESD 방향성

VI. 진단과 제언

01

미래변화와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ESD

미래 사회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019년 지속가능성 핫이슈

플라스틱 및 폐기물



생물다양성



식량 및 건강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전환



2019년 지속가능성 이머징이슈

불평등



수자원



대기질



정신건강



의류



□ 출처: WBCSD 2019년 지속가능성 전망 및 동향

미래 사회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WBCSD 선정 6대 기회와 도전 지속가능성이슈

기후와 에너지	도시와 모빌리티	순환경제	식량과 자연	사람	기업가치의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의 하락에 힘입어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현재 시정중인 정책으로는 지구 평균온도가 3.3℃ 상승하여, 파리협정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임. · 포용리듬의 확산으로 기후대응 의사결정 행동에 대한 정치적 모멘텀이 위협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할과 가장이변 대응조치를 강화해야 함. · 중국이 스마트시티를 규모에 맞게 현실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 배터리의 비용 및 인프라의 자본투입이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에 대한 기회 창출에 주목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폐기물 발생과 자원부족 현상은 글로벌 가치사슬 협력의 필요로 함. 글로벌 연명 형태의 행동 이니셔티브가 취해질 것임. · ICT와 신소비재 부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복제품 회수 제도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바이오경제는 모든 산업 업종에 걸쳐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출범한 과학자들의 위원회인 EAT-Lancet의 보고서는 식음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춰 발간될 예정이다. · 세계농업연합(GAA), 행미엔 123 이니셔티브와 같은 글로벌 연합들은 농작물 수확량 격차를 줄이고, 식량의 질을 개선하며,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우수사례 발굴에 집중할 것임. · 소비자 선호와 순환경계는 도시 식량 시스템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기업 역할의 기대치가 커지고 있음. · 모든 유형의 평등 이슈가 논리와 주류가 될 것이며, E.N의 입법 등으로 인권문제 또한 진척이 기대됨. · 말레나일 세대의 인구수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추월하여, 세대 트렌드 선호도에 대한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 미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사회적임대주(SHRE) 운동 확산이 2016년 전년대비 38% 증가함. ·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사가 의무화됨. ·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블랙스완' 현상의 대마로, 투자자들은 기업과 자산관리사에게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요구하고 있음. · ESG는 무동 자산기사의 일환으로 인지되기 시작함.

□ 출처 : WBCSD 2019년 지속가능성 전망 및 동향

미래 사회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영역	미래트렌드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질과 여가 건강 관심증대 ✓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치관과 개인화 심화 포용도시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센서, 유전자, 수소기술 등 혁신기술 고도화 ✓ IoT, AI, 빅데이터, 초연결 등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연결도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과 제조업 등 질적 변화, 인프라의 노후화 가속화 ✓ 양극화 및 격차의 확대, 공유경제 확대 공유도시
Environmen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재해취약지역 증가, 불확실성 증대 ✓ 지역환경오염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두 전환도시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동북아 변화, 글로벌 사회화 ✓ 자치분권 확대와 협치, 마을민주주의 증대 분권도시

미래 사회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교육분야에서 향후 토론해 볼 질문들

독일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네트워크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산업사회에서 변화될 노동환경을 '노동 4.0(Arbeit4.0)'으로 명명하고, 6개 영역에서의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함(BMAS, 2017)

- (디지털화에 따른 직업군의 변화와 고용의 감소 등) 미래에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미래의 노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데이터의 축적과 사용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 미래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게 될 경우 인간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기계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인가?
- (시·공간적 차원에서 노동의 유연성 문제) 미래의 직업세계는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바,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유연성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가?
-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조직의 규정) 더 이상 고전적인 기업의 시스템에는 상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의 최첨단 기업들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7

미래교육트렌드

다가오는 산업 4.0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4.0의 핵심은 '생산체계가 개인에 대한 통제를 넘어 스스로 소비에 반응하고 학습하여 적절히 연동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 평생학습은 이러한 시대에서 개인 단위의 자기 역량 개발은 물론, 학습사회· 학습경제·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서로의 지식을 초연결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모든 사람이 생애 주기와 무관하게 학습해야 하며 학습이 곧 일상인 사회, 기술과 자본은 물론 개인의 생각 또한 학습을 지원하는 '자기 조직적인 학습체계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
사회적 정서적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으로 인공 지능 개발과 인간형 로봇이 등장하면서 감정을 인지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인간의 정서에 주목하고 있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티와 사회에서 전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봄 • 미국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사회 정서적 학습법은 자기 이해, 자기 통제,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능력,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5가지 감정 영역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하고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학습 과정을 거침 • 지식을 습득하는 방향보다 사회성을 학습하는 방향을 강조하며, 협업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공감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음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학습자가 복잡한 과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배우는 과정으로 스스로 제안·기획하고 함께 학습하는 동료와 협력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함 • 더 나은 프로젝트 학습 운영방법과 철학을 연구하는 HQPBL은 프로젝트 학습 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지적 도전과 성취, 실제성, 공적인 결과물, 협업, 프로젝트 관리, 성찰 등 6가지를 제시함
학습주도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필요한 학습주도성을 촉진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총 6가지 부분을 4단계 수준으로 나눠 평가 테이블을 구성하였음 • 평가 내용은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 도전 의식, 학습에 대한 도전과 성찰 등이 있으며 측정치는 발현, 개 발, 숙달, 상위 등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음 • 몇 개 프로젝트를 하였는지 양적으로 측정하기보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습자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가까움

□ 출처 : 정책공방, 은평 평생학습 중기계획연구, 2019

8

UN의 ESD 10년~(2005-2014)

- UN, 일본과 스웨덴의 제안에 근거하여 2002년 12월 57차 회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 교육(DES) 시작하기 위한 45/254 결의안 채택
- UN, UNESCO를 DESD 주관기관 지정
- UNU-IAS, 전세계 ESD를 촉진하기 위한 연락망 개발 촉진
- UNEP,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산학협력(SUPES) 창설

9

Global Action Program(GAP, 2015-19)

- ESD에 대한 GAP 목표
 - 기존의 교육 및 학습을 ESD의 방향으로 재조정
 -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모든 의제,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교육 및 학습 강화
- GAP 우선순위 활동
 - 정책선진화, 학습 및 교육환경 혁신, 교육자의 역량구축, 청년 역량 강화 및 노동력 동원,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솔루션 가속화

10

ESD for 2030 (2020-30)

- **목표**

- UNESCO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 GAP 구현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확인하기 위한 현상파악 완료

- **전망**

- GAP의 기존 5개 핵심 활동영역은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 반한 국가차원의 공식 이니셔티브(Nationwid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를 구축해 국가단위로 ESD를 증진계획
- 전 세계적으로 선발된 유관 분야 핵심 파트너들 간 네트워킹 (Networking of key partners, NKEP)을 별도로 구축해 정기적으로 전 세계 ESD 이행 현황을 점검 예정

11

0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현황

대통령소속 & 환경부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로 재구성

12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현황

- 2000년~2006년(1~3기):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 2006년~2008년(4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공포, 제1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06~2010)
- 2008년~2010년(5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적 근거 변경
- 2010년~2015년(6~7기):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1~2015)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변경(대통령 → 환경장관)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
- 2016년~2017년(8기):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20)
- 2018년(9기)~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및 지속법개정추진
 - 공식명: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20) 변경계획
 - 지속위 소속변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상정(2019.11.7)

13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현황

- 2008년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ESD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
 - ESD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추진, 점검
 - 교육과정에 SD교육 추가 및 강화 (주5일제 대비 교육과정 개편)
 - ESD 연구학교 지정운영
 -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재발간, 사례중심 확산
- 2008년 이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ESD 전개
 - ESD 프로젝트 인증제, 콜로키움, 레인보우프로젝트 등
 - 교사연수, 교육자료의 발간, 기간협력, RCE 추진
- 통영RCE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 확산
 - 통영, 울주, 인제, 인천, 창원 RCE → 통영RCE가 활성화
 - 서울 도봉구청이 신규로 RCE 인증을 진행중임(2019)
- 일부 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ESD 시범학교 운영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SD인식확산

UN은 제70차 유엔총회(2015.9)에서 공동목표로 SDGs 채택
2016~2030년, 총 15년 동안 시행



15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비전

K-SDGs의 공식 명칭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의 변경계획”



1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 추진 체계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과정



- 작업반 429명, 이해관계자 그룹 132명, 지역별 순회토론회 1천여명, 상하반기 국민대토론회 1천여명, 대국민설문조사 2천명이 참여하는 전국민 프로젝트로 진행

목표별민관학공동작업반이해관계자그룹(K-MGoS)구성

목표	총계	빈곤 퇴치	농업 발전	보건 진	교육	여성 역량 강화	물 위생 관리	기후 변화 대응	경제 성장	지가 도 구	속 능 시 축	지 가 소 생 증 진	해 양 존	육 상 태 계 보 존	사 회 도 축	글 로 벌 파 트 너 셔 강 화
총계	192	8	10	10	18	10	11	28	18	11	21	11	12	11	13	
민	87	4	4	6	8	3	5	14	8	7	10	3	5	5	5	
관	72	3	3	3	7	6	4	10	5	2	10	6	5	2	6	
학	33	1	3	1	3	1	2	4	5	2	1	2	2	4	2	

구분	여성	청 소 년	농 민	노 동 자	산 업	NGO	과 학 술	지 방 부	교 육 · 학 계	장 애 인	지 공 체	이 주 민	동 물 복 지	청 년
총계	132	13	4	3	6	7	27	3	13	11	21	11	12	11
기관	90	8	3	3	3	7	17	3	4	4	17	12	2	2
국민	42	5	1	0	3	0	10	0	9	7	2	4	1	0 ₁₉

국민참여과정

지역별 순회토론회, 제1~2차 국민 대토론회, 부대행사



동남권(6.7)



서남권(6.8)



수도권(6.12)

K-SDGS 전국 지역별 토론회



K-MGoS 간담회 (11.20)

작업과정공개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양한 개시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자료, 과제정보, 국내외, 수상도서, 출판자료, 지속가능발전목표(K-SDG), K-MGSO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자료구분	작성명	분류
39	K-SDG 3 차종 입고	2018-11-18	권재순	보고	SDG3(안전과 웰빙)	
87	건강과 웰빙 목표와 의료 급여제도	2018-09-28	최은순	취재	SDG3(안전, 웰빙)	
95	Good Health and Well-Being 목표와 기	2018-09-21	최은순	담당보고	SDG3(안전, 웰빙)	
85	골개골조형 치료 보고	2018-08-23	최은순	보고	SDG3(안전, 웰빙)	
94	K-SDG 5번 양성평등(7월 28일 현재)	2018-07-28	조혜교	취재	SDG5(양성평등)	
53	7.0 환경에 대한 교육목표가 국민연	2018-07-18	박정호	취재	SDG7(에너지)	
82	SDG 2 물과 관련된 K-MGSO	2018-07-16	김홍성	담당	SDG2(농업)	
81	SDG 11 세부목표와 치료 과목연입니다	2018-07-09	주홍	취재	SDG11(도시와 마을)	
90	SDG 2 물과 보건	2018-07-04	김홍성	담당	SDG2(농업)	
79	SDG17 세부목표 및 주류	2018-06-29	주홍	담당	SDG17(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다양한 개시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자료, 과제정보, 국내외, 수상도서, 출판자료, 지속가능발전목표(K-SDG), K-MGSO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자료구분	작성명	분류
103	에너지용 임업연산기	2018-11-21	김주희	담당보고	K-MGSO(에너지)	
160	에너지용 임업연산기	2018-11-20	김주희	담당보고	K-MGSO(에너지)	
101	K-MGSO 에너지기술 임업연산기 사용	2018-11-20	김주희	담당보고	K-MGSO(에너지)	
100	에너지용 연산기 운영합니다	2018-11-20	김주희	취재	K-MGSO(에너지)	
89	MGSO를 가장 임업연산기	2018-11-18	김주희	담당보고	K-MGSO(에너지)	
88	K-SDG 5 차종 입고	2018-11-13	조혜교	담당	SDG5(양성평등)	
87	K-MGSO 산업기술 임업연산기	2018-11-03	K-MGSO(산업기술)	담당보고	K-MGSO(에너지)	
85	건강과 웰빙 목표와 의료 급여제도	2018-09-28	최은순	취재	SDG3(안전, 웰빙)	
84	Good Health and Well-Being 목표와 기	2018-09-21	최은순	담당보고	SDG3(안전, 웰빙)	
82	골개골조형 치료 보고	2018-08-23	최은순	보고	SDG3(안전, 웰빙)	

작업반 보고서 공유

이해관계자 입장 공유

K-SDG 세부목표 및 지표 구성, 주요지표

K-SDGs 주요 지표

분야	주요지표	2017년대비 2030 목표값 설정
사회	•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비율	36.8%* → 31.0%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65.9% → 85.5%
	• 노인 빈곤율	46.5% → 31.0%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4.3 → 11.9
	• 업무상 사망사고 만인율	0.52 → 0.22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24.0% → 44.0%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 4.6%
환경	• 주요 열중위기종 복원율	74.3% → 90.0%
	• 갯벌 복원면적 (km ²)	0.2 → 6.0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4.9% → 10%
경제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23%** → 4.29%
	•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	51.6% → 52.9%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75.8%** → 95.4%
	• 친환경차 보급대수	9.7만대 → 880만대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구성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목표*	122 (14)	4 (-)	5 (-)	9 (3)	10 (-)	7 (0)	7 (3)	4 (1)	7 (-)	5 (1)	5 (-)	8 (-)	11 (3)	4 (1)	8 (-)	8 (1)	14 (1)	7 (-)
지표*	218* (122)	8 (5)	11 (7)	18 (9)	27 (6)	9 (1)	14 (12)	7 (5)	11 (4)	8 (4)	10 (7)	19 (9)	20 (12)	6 (6)	14 (8)	13 (4)	14 (14)	9 (9)

* 중복지표 4개 포함

K-SDGs 목표 내용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

분야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빈곤	목표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식량/농업	목표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건강/웰빙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교육	목표 4. 교육증진
성평등	목표 5. 성평등 보장
물	목표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에너지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일자리/경제성장	목표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산업화/혁신	목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D 확대 및 경제성장
불평등	목표 10. 불평등 해소
도시/공간	목표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속가능한소비생산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기후변화	목표 13.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자원	목표 14.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자원	목표 15. 육상생태계 보전
정의/제도	목표 16. 인권·정의·평화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17. 지구촌협력 강화

23

K-SDGs 발전방향

- K-SDGs 지표별 보완
 - 현재까지 수립된 전체 214개 지표 중 26개 신규지표는 2019년내에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한 이후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 K-SDGs 모니터링·평가 방법론 확립
 - 국가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진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 사회적 여론을 통한 비전 공유 및 홍보
 - K-SDGs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가능
- K-SDGs 릴레이 포럼개최
 - K-SDGs 17개 목표를 4개의 주제별로 구성하고 9차례 포럼과 대토론회를 통해 수정보완 방향 논의 진행중('19.5~ 현재)

→ 최종 논의된 K-SDGs 지표 및 세부목표는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40)' 수립 시 반영

24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교육분야 (Goal 4) 목표 및 세부목표 현황

번호	세부목표 10	지표 27(UN 대비 신규 6)	2030 목표치	소관 부처
4-1	모든 아동이 성별과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 초·중·고등교육의 평등한 이수를 보장한다.	○ 학업성취도 국제평가(점) ○ 국가 차원의 학습성과 지표 산출	- PISA : 85.5('17) 85.6 (과목평균) - TIMSS : 98.9('17) 99.0 (2개 학교급, 4개 과목 평균) ※ 출처 및 근거 PISA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연구) 및 TIMSS(국제 수학, 과학 교육 추이) 결과 - 중학교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통한 학습성취 수준 및 정의적 특성 결과 산출 ※ 출처 및 근거: 자체 기본계획	교육부
4-2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여 초·중·고등교육에 대비한다.	○ (신규)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안녕(well-being)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이하 영아와 남아 비율 ○ (신규) 초·중·고교 취학 전 체계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이용률(%) ○ (신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 긍정적인 가정 학습 및 양육 환경을 경험하는 영유아 비율	통계 산출 방법 개발 - 58('17) 75 ※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 검토 - 24('17) 44 ※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 검토 통계 산출 방법 개발	교육부 목 지 부 2

4-3	모든 학습자들에게 성별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 (신규)고등교육이수율(%)	- 48('17) 48 ※ 출처 및 근거: OECD	교육부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 (신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공비의 민간부담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 평생학습참여율(%)	- 35.8('17) 38.4 ※ 출처 및 근거: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KEI)	교육부
		○ 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 16.1('17) 18 ※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계획(17년 대비 10% 상향설정)	고용부
4-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주민, 취약 상황에 처한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지표에 성별, 장애, 취약계층별 분리 통계 도입	통계산출방법 개발	교육부 고용부
		○ 취학률(%)	통계산출방법 개발	
		○ 학업 중단율(%)	(다문화학생학업중단율) - 1.32('17) 1.00 ※ 출처 및 근거: ① 성별, 장애인 여부 등에 대한 통계지표는 추후 개발 * 부처 취합자료	

4-6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청소년·성인 문해율(%)	- 성인 문해율(수준 1 이하 비율) : (언어) 22('17) 20 : (수리) 42('17) 40 ※ 출처 및 근거: PIAAC(국제 성인역량조사)	교육부
4-7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국가교육정책 이행	- 정성평가(이행여부) ※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	교육부
		○ 교육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 포함	- 정성평가(이행여부) ※ 출처 및 근거: 부처 내부검토	
		○ 세계시민교육 교수역량강화 교원연수누적인원(명)	- 1,374('17) 8,000 ※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	

4-8	아동, 장애인,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학교 내진보강률(%)	- 25('22) 100 ※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	교육부
		○ Wee클래스설치비율(%) ※ Wee : We Education + We Emotion(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상담 역할)	- 57.5('17) 100 ※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	
4-9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 GDP 대비 고등교육공교육비정부부담비율(%)	-10('17) OECD평균 ※ 출처 및 근거: OECD(GDP 대비 고등교육공교육비정부부담 비율)	교육부
4-10	모든 교육단계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한다.	○ 보육교사 중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비율	목표치 설정 필요	교육부 복지부
		○ 특수교사 일인당 특수학생수	-5.96('17) 지속감소 ※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 66.9('17) 100 ※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	
		○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61.7('17) 100 ※ 출처 및 근거: 부처 취합자료	

4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교육부 발표자료(19.10.8)를 재구성

K-SDGs 교육부 소관목표

비전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
전략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목표	모두가 누리는 교육 증진
세 부 목 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 교육이수 보장 2. 영유아 보육·교육 보장 3. 직업기술교육, 고등교육 접근성 보장 4. 직업과 삶을 위한 지식, 기술훈련 보장 5. 교육 내 성차별 철폐, 취학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보장 6. 성인 문해와 기초수리력 달성 보장 7.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확대 8. 교육시설 및 포용적이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9. 장학금 확대 10. 교원 수급 확대

31

(4-1이행)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 교실 내 보조인력 투입을 통한 기초학력 결손 예방('19년 62교 시범학교)
- ✓ 두드림학교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 종합적 지도('19년 4,018교)

(4-2이행)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실현

-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19.4.) 28%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목표('22)
-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200명 이상 유치원)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도입 목표('20)

(4-3이행) 대학생 학비 및 주거부담 완화

- ✓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국공립 '18, 사립 ~'22),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8. 2.25→2.20%)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증액(연200 → 300만원)

(4-3이행)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노력 및 세대간 학력격차 해소

- ✓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8-'22)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제공 강화 및 전문대학을 평생직업의 허브로 육성

32

(4-4이행)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

- ✓ 기존 직업계고 학급 수 확대,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 통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18년 18.5%)

(4-4이행) 평생학습 참여 확대

-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학습비 부담 경감
 - * '18년 24억원(5천명 내외) → (향후) '22년까지 누적 4만5천명 목표
-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지원, 유연화된 학사제도 도입 유도로 학습부담 경감
 -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19) 26개교 → (향후) '20년 이후 40개교

(4-5이행)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 ✓ 특수학교 수, 특수교사 정원 점차 확대

(4-5이행)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내실화

- ✓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강화
- ✓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맞춤형 지원,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

33

(4-6이행) 문해교육 기회 확대

- ✓ (문해교육 지원 확대) 향후 5년간 문해교육 희망 모든 국민에게 문해교육 기회 제공
 - * '18년 43만명 → (향후) '22년 64만명
- ✓ (생활문해 지원 강화) 실생활 중심 기초능력 개발 위해 언어문해와 연계한 생활문해 영역 지원
 - * '18년 정보문해교육 → '19년 건강문해교육 → (향후) '20년 관광문해교육

(4-6이행) 문해교육 범위 및 대상 지속 확대

- ✓ 다양한 유형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지역별, 분야별 프로그램, 농산어촌 문해교육)
- ✓ 생활문해교육 분야 확대위한 교과서 개발, 교사 교육 지속 추진
- ✓ 다문화, 탈북 등 신문해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4-7이행)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 이해 확산

- ✓ (교사역량강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역량강화 연수로 전문가 양성 내실화
 - * '19년 누적인원 2,606명 → (향후) '22년 4,000명 → '30년 8,000명
- ✓ (수업지원)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및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17~)
- ✓ (예비교사지원) 고등교육기관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지원('19년 10개 대학 강좌 개설 운영)

34

(4-8이행)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 학생 교직원의 안전의식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4-8이행)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습환경 조성

- ✓ 초중등학교 Wee클래스 설치 비율 확대

* '19년 61.6% → (향후) '22년 73.7% → '30년 100%

(4-9이행) 일반재정지원 확대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 대학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 건학이념과 특성·강점 분야 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

(4-9이행) 고등교육 재정 확대 노력

- ✓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OECD수준(GDP대비 1.1%)으로 지속 확대

(4-10이행) 교원 수급 확대 노력

- ✓ 초·중등 교과교사는 '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확보
- ✓ 유치원, 특수, 비교과(보건, 전문상담 등)교사는 각 영역별 특수성, 법정정원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한 법정 정원 확보

*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배치비율 '17년 66.9% → (향후) '22년 86.9% → '30년 100%

SDG4-교육2030 협의체 구성 및 이행노력

**SDG4-교육2030의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교육부와 유관 교육기관들과 협의체 설립('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국)와 워킹그룹 대표기관 업무협약 체결('18)



- SDG4-교육2030 포럼(2017-)
- 카드뉴스 제작(2018)
- SDG4-교육2030 연구보고서 발간(2019)
- SDG4-교육2030 국내 중기 이행전략(2020-2023)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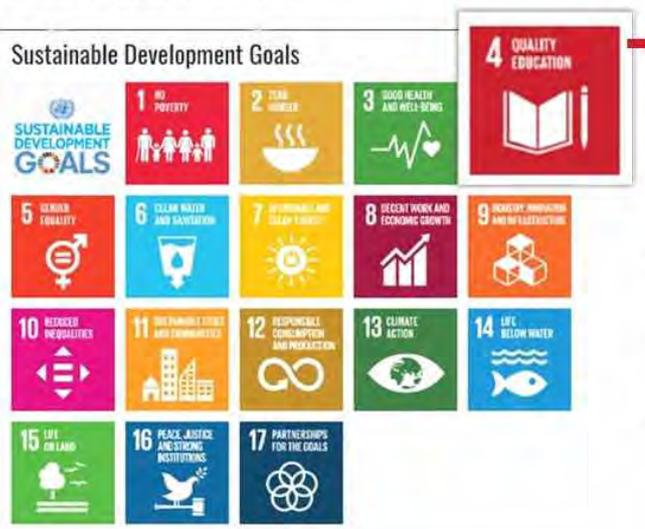
SDG4-교육2030 협의체 구성		
구분	기관	역할
총괄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	워킹그룹대표기관선정, 운영모니터링
사무국	유네스코한국위원회(교육팀)	운영실무, GCED/ESD워킹그룹공동운영
운영 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중등교육워킹그룹운영(SDG4.1)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워킹그룹운영(SDG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워킹그룹운영(SDG4.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교육워킹그룹운영(SDG4.3.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형평성워킹그룹운영(SDG4.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워킹그룹운영(SDG4.6)
	유네스코아태국제이해교육원	GCED/ESD워킹그룹운영(SDG4.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ICT워킹그룹운영(범분야)
한국교육개발원	모니터링/보고워킹그룹운영(3분60초)	

5

다시 생각해보는 ESD 방향성

방향성 및 추진 전략 - 기본 가치와 철학

+ Quality Education(UN SDGs)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1.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
 2.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
 3.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4. 관찰은 일자리를 위한 적합한 기술(교육)
 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
 6.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7.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
- A.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
- B. 장학금 실질적으로 확대
- C.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 실질적 확대

방향성 및 추진 전략 _ 기본 가치와 철학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Education 2030(UNESCO)

201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창설

UN SDGs

4번 양질의 교육,

11번 지속가능한 도시

이행 촉진을 위해

전 세계 학습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사례 공유, 정보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 평생학습의 증진 및 학습도시에 대한 비전 추구에 앞장서는 도시

- '학습도시 구축에 관한 북경 선언문'·'학습도시의 핵심특징' 채택에 동의하는 도시



[출처] UNESCO 글로벌 학습도시 안내서, 2019

시민과 함께 방향성 찾기 질문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내가 사는 지역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탄력적이며 유연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Why?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내 사회통합을 위해

시민들의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포용성을 찾기 위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방향성 찾기 질문들

ESD에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ESD의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디서 누구와 배울 것인가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것인가

How to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지역에서 적용할 해법은 있는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1

06

진단과제언

42

ESD 확산노력

- DESD, GAP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거 10여년간 “국가의 무관심” 속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ESD를 확산하는 노력
- 일부 대학 연구자, 교사를 중심으로 ESD 시범교육의 명맥을 유지
- 민선 5~6기 지방정부를 거치면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도입과 확산, 평생학습분야에서 접목시키려는 노력
- 지방정부, 공무원교육원, 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
- 환경교육네트워크,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서 인식확산과 지속가능발전강사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Goal 4의 설정으로 본격적인 추진 시도
-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시스템 복원 시도

43

ESD 확산한계

- ESD 총괄 국가기관의 모호 또는 책임성 부재
- KSDGs 중 교육분야의 도전적 목표 설정 미흡
- 인력양성 확대 미흡
-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확산 미흡
- 환경영역 중심의 콘텐츠
- 프로그램의 확장 미흡
- 지역사회속으로 확장 미흡

44

ESD 추진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등)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를중심으로하는 컨트롤타워(지속위)를재구축
 - 혹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
- 교육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역할 강화
 - 교육부가 제도권 교육과 평생학습분야에서 ESD 확산
 - 교육부 역할은 환경중심교육에서 벗어난 ESD본연의 교육에 유리

45

ESD 인력양성 확대 지원

- 학교중심 ESD 인력양성 지원
 - 초중고에서 정규교육과정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화
 -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강화
 - 교대, 사대의 ESD교육 강화
- 지역사회 ESD 인력양성 지원
 - 대학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커리큘럼 운영 지원
 -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자 양성
 - 기업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46

ESD 콘텐츠 확장, 프로그램의 다양화

- 환경영역에서 벗어난 콘텐츠로 확장하는 노력
-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 지역내 학습과 실천이 연계되는 프로그램
- 새로운 시민주체를 발굴, 양성하는 프로그램
- 지역내 확산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47

ESD 주체와 대상의 확대

- 학교, 공무원 교육에서 벗어나기
- 전문가 중심의 ESD에서 시민과 지역 중심의 ESD 실천으로 전환하기
- 지방정부가 시민사회, 지속협 등과 함께 ESD를 지역내 마을속으로 확장하며, 마을주민들과 함께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지원하기
-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등에서 ESD를 기업과 산업계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지역 RCE의 활성화를 통해 권역별 ESD 지원하기

48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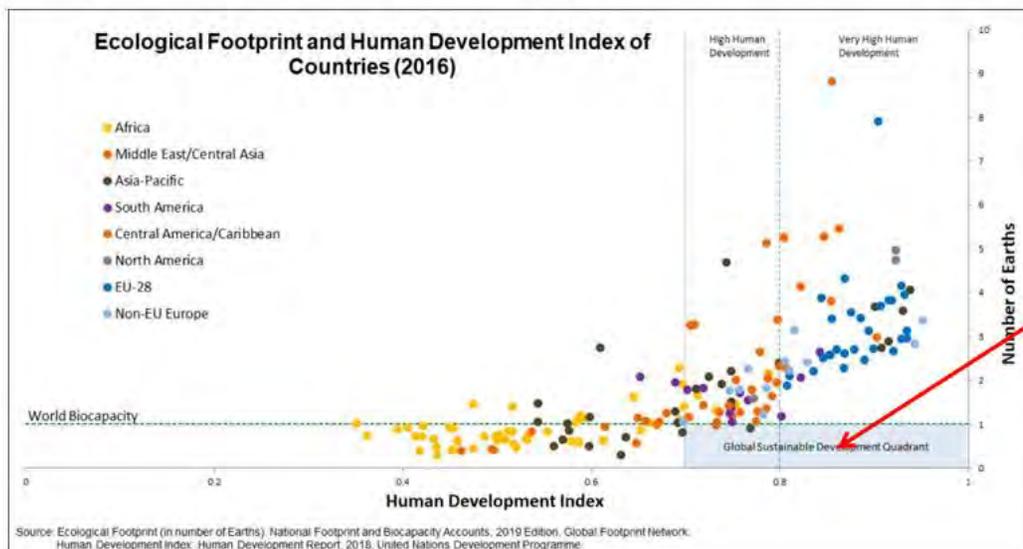
이재영(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국가환경교육센터장)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관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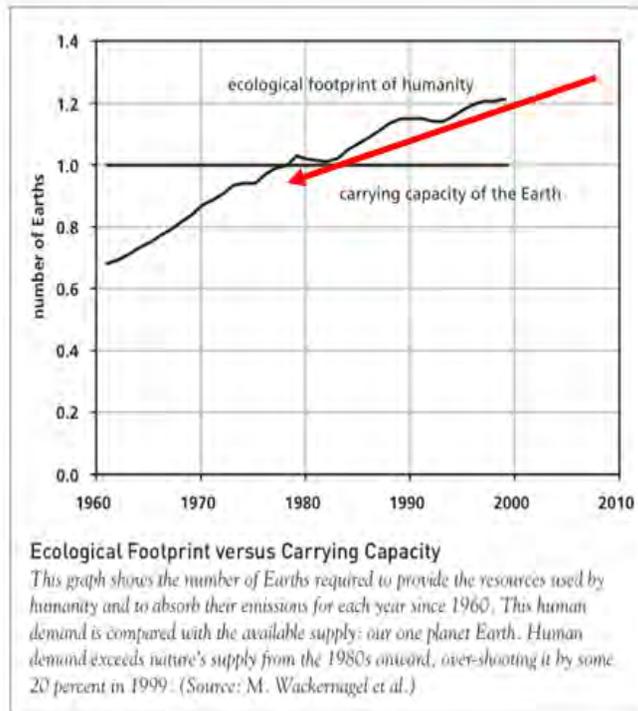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이재영
(공주대학교, 국가환경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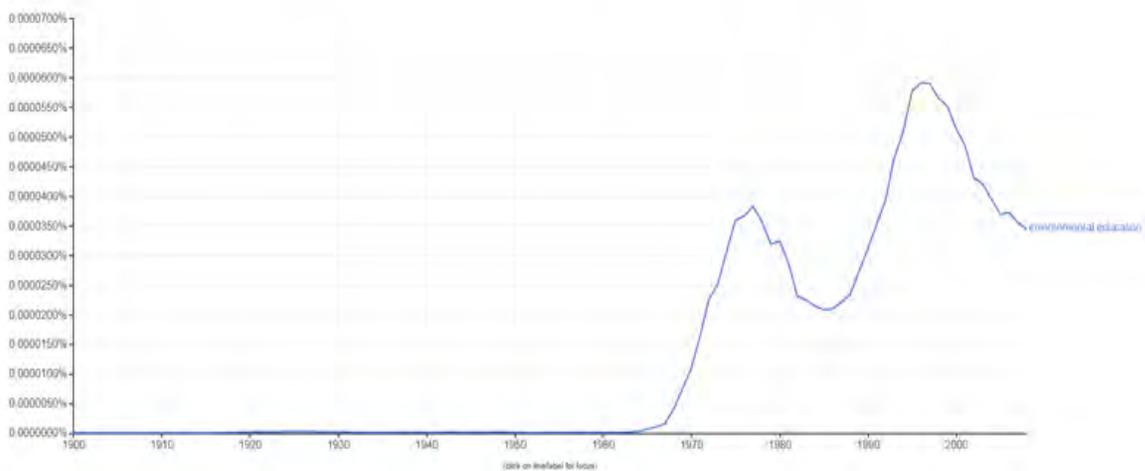
생태문명은 어디에 있는가?



생태문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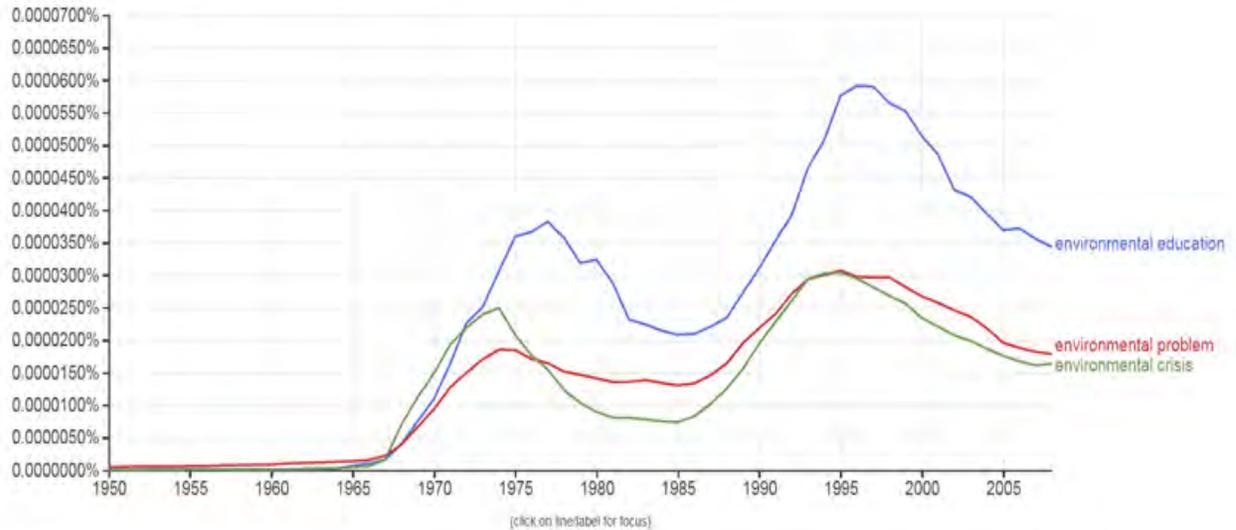


생태문명과 세계 환경교육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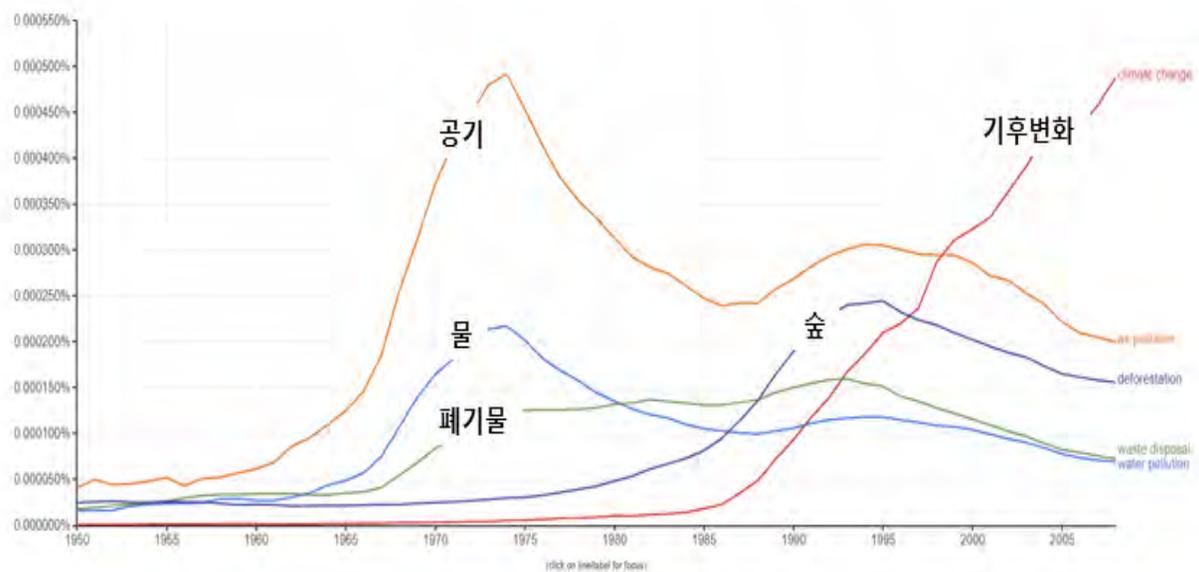
Google Ngram Viewer

환경문제의 변화 양상과 환경교육의 흐름



Google Ngram Viewer

1기: 생활환경오염 -> 2기: 자연생태계파괴 -> 3기: 지구적 환경재난



Google Ngram Viewer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EE for SD)



제3기: 지구적 환경위기와 지역적 환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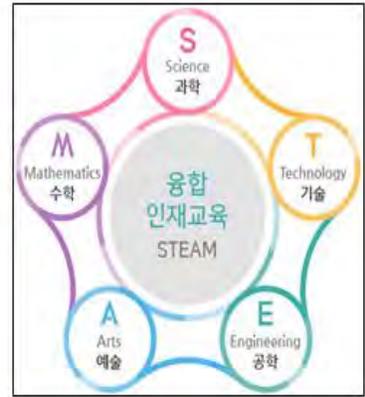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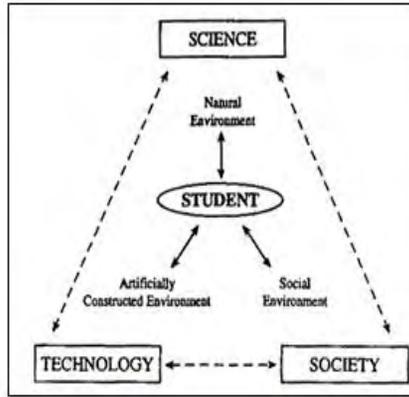
영역	대상(내용)	방법	목표	접근법
1기: 생활환경	수질, 대기, 쓰레기, 소음, 악취	친환경행동교육	심각성 인식, 개인적 실천	분산적 (다학문적)
2기: 자연생태	숲, 강, 바다, 습지, 생물들	자연체험교육	생태적 감수성, 생명윤리	체험적
3기 지구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미세먼지, 해양오염	통합적 탐구교육	시스템적 사고, 사회적 실천	통합적 (간학문적)

공동체(사회) 중심의 교육과정

사회 3.0 산업사회	사회 4.0 정보사회	사회 5.0 초스마트사회 (지속가능사회)
자유주의 & 복지국가	& 신자유주의	& 사회민주주의
학교 1.0	학교 2.0	학교 3.0
국가중심	개인중심	사회중심
교과 중심 + 표준화된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 기반 + 학생의 선택권 일부 보장	통합적 교육과정 지역화 + 학생의 선택권 확대
국가 경쟁력	학습자 개인의 지식과 역량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 역량 (경쟁력과 공생력의 균형)
효율성, 표준성	다양성, 자율성	통합성, 공동체성
강의법(교사, 학문 중심)	탐구법(학습자, 개인 중심)	팀 프로젝트법
지식 중심 지필평가(수능)	지필평가 + 잠재력 평가(수시)	정답 없는 문제해결력

학교교육의 전환: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향한 창의적 민주시민의 양성

키워드	교육의 영역	역량	가치
지속가능한	K-SDGs / 환경교육	통합적이고 (지구적) 시스템적인 사고	통합성
생태문명	철학, 역사, 지리, 윤리, 환경교육	마을과 지역의 전통(생태)지식	지역성
창의적인	과학교육과 예술교육, 수학	과학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의 연계	창의성
민주시민	정치, 사회, 문화교육, 언어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사회성



2017 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상선고등학교

교과	교과명	7종 단위	상계분반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단위		합계	
			인문	자연	공통	인문	자연	인문	자연	전공	자유	전공		자유
영어	영어 I	5	5	5	5									
	영어 II	5	5	5		5								
	문법	5	4	4			4		4					
	독해/문법	5	4	4				4	4					
	회화/과외	5	6	6					6	6				
	교원	5	6	6						6	6			
	수학 I	5	5	5	5									
	수학 II	5	5	5		5								
	자유선택	5	4	4			4	4						
	과학 I	5	4	4			4	4						
수학	수학 I	5	5	5	5									
	수학 II	5	5	5		5								
	자유선택	5	4	4			4	4						
	과학 I	5	4	4			4	4						
	과학 II	5	4	4					4	4				
	과학 III	5	4	4						4	4			
	과학 IV	5	4	4							4	4		
	과학 V	5	4	4								4	4	
	과학 VI	5	4	4									4	4
	과학 VII	5	4	4										4
인문	인문 I	5	5	5	5									
	인문 II	5	5	5		5								
	인문 III	5	5	5			5	5						
	인문 IV	5	5	5					5	5				
	인문 V	5	5	5							5	5		
	인문 VI	5	5	5								5	5	
	인문 VII	5	5	5									5	5
	인문 VIII	5	5	5										5
	인문 IX	5	5	5										
	인문 X	5	5	5										

내 삶의 환경 = 마을(지역) = 하나의 시스템 = 생태계 + 사회체계



Google Ngram Viewer



ESD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조건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민주시민교육에서 키워주고자 하는 역량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또는 지구시민교육)에서 필요한 시민역량과 많은 측면에서 중첩된다. UNESCO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ESD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경을 넘어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 두 개념은 민주시민교육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ESD에서 미래와 현재의 관계를 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세계시민교육에서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세계시민이라는 의식과 전지구적 실천을 더 강조한다.

최근 ESD와 민주시민교육이 자주 등장하고 강조되는 바, 이 글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ESD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 둘째,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 조건은 무엇일까? 셋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넷째, 오늘날 사회변동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다섯째,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내실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2018)가 밝힌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를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공유하고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유엔은 201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선포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적 위상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environment education)이 발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은 환경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단순히 환경교육의 분야로만 국한한다면 그 의미가 단지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으로 감환(reduced)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요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때 미래세대의 필요는 -환경의 보존을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현 세대의 자세와 능력이 있어야만 충족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 넘어서 빈곤, 성불평등, 인권, 평화, 인간의 기본권의 실현 등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렇듯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렴적으로 보면 후속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구 자원과 환경을 과잉 개발하거나 남용하지 않기 위해 현 세대에게 의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 발산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불평등, 사회정의 등), 경제적(빈곤, 양극화, 분배정의 등), 생태적(환경, 주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ESD나 세계시민교육과는 서로 공통점이 많지만 동시에 다른 개념이다. 이 두 관계를 기계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보기엔 민주시민교육은 ESD나 세계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 또는 필요조건이 된다. 이는 교육부(2018)가 제시하는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방법에서 엿볼 수 있다.

- 민주적인 내용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필수적
-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인식이나 시각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자기 형성 과정이 필요
 -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협력형 수업으로 변화 필요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토의·토론,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등의 교수학습방법 활용
 -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참여·실천하는 학습 필요

또한 학교에서의 평가방식은 ESD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나, 평가는 서열화 중심의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달성 불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과 서열화로 대표되는 결과중심의 평가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관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총괄식 지필평가는 지양하고 모둠활동에 대한 학생 개별 평가,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수행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큰 변화이자 발전이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은 ESD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려되어야 할 한국적 특수성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ESD,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관점인 세계시민교육(지구시민교육)을 실천하기에 현실적 조건이 녹록치 않다. 이러한 고충은 고려되어야 할 한국적 특수성이라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첫째, 한국은 그 지리적 특성에 의해 타문화와의 접촉이 적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원래 순혈주의 가치관이 강한데다가 분단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육상교통으로는 갈 수 있는 외국이 없다. 이러한 지리적 폐쇄성으로 인해 타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논의가 무성한 EU 지역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이에 한국적 모형은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보다 실천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폐쇄성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일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타문화의 접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쟁적 민족주의로 인해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즉 국제경쟁력 강화를 세계화와 등치시키는 도구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인종, 언어, 문화, 전통, 관습을 가진 이주민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심리적 저항감이 심하다. 박홍순(2009)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인들의 심리에 내재된 ‘복제 오리엔탈리즘’의 분석틀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백인 중심의 문화에 대해 선망하면서도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해서는 열등한 것으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백인들이 동양을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Said, 1979; Hall, 1997)이 이제는 한국인들의 한국이주민에 대한 시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

셋째, 국가의 위상에 비해 인권의식이 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인권 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적극적 의미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강순원, 2000).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날로 성장해왔던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권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이전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군사정권의 유지라는 정치적 필요와 성장 위주의 경제적 가치에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허수미, 2008).

넷째,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면에서 발전에 저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문제, 평화지향적 통일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지구시민교육의 일부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분단 후 사회주의 체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다름’이 승인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이경희, 2010).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관용과 포용력에 대한 태도 교육을 생략한 채 지구시민교육이 수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이상과 같이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 이외에도 학교의 문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학교 문화는 일제식 수업과 획일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학교문화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물론 지구시민교육에 적합한 학습방법과 호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3. 현 단계에서의 주안점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충분한 정도로 수행할 수 있기에는 여러 가지 고유한 특성과 이에 따른 제약이 있다. UNESCO(2006)나 Oxfam(2006)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의 지구시민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적 특수성과 현 단계에서의 주안점

한국적 특수성	현 단계에서의 주안점
지리적 폐쇄성과 순혈주의	체험과 감정이입의 학습전략
도구주의적 세계화 관점	변화지향적 세계화 관점 채택
인권 의식의 상대적 미약	글로벌 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
분단현실과 북한이탈주민 증가	글로벌 이슈에 북한 문제 포함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과 수업	실천교육과 주요 문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첫째, 지리적 폐쇄성과 순혈주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지구시민교육에서는 체험과 감정이입의 학습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지리적 폐쇄성과 강한 순혈주의적 가치관은 지식전수 위주의 교육으로는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삼열, 2003; 양영자, 2007). 즉, 한국에서는 학생 자신이 지구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는데 필요한 타문화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아에 대한 체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감정이입과 체험 중심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아, 빈곤, 전쟁으로 인한 불행,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감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경쟁지향적 국제화 교육을 지양하고 변화지향적 세계화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단계에서 한국인들이 쓰고 있을 수 있는 ‘하얀 가면’(Fanon, 1967)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성찰이 필요하며(강순원, 2000; 노혜정, 2008), ‘세계화=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등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없다면 지구시민교육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이중적 시선을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Sleeter & Grant, 2003)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박홍순, 2009). 다문화교육과 지구시민교육은 그 개념상 동일한 것은 아니나 다문화교육 없이 지구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Banks, 2008; 장인실, 2006)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교육은 지구시민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의 위상에 비해 인권의식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강순원, 2000), 범교과적으로 학습되는 인권교육에서 지구시민교육을 연계하여 일국/글로벌 차원에서의 인권의식 수준을 현저하게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와서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권이 독립된 단원으로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허수미, 2008). 한국사회 내에서의 인권교육이 미약하다면 글로벌 이슈로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한

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이슈와 글로벌 수준에서의 인권 문제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요청된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 교육보다는 인권의 실현 교육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강순원, 2000)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넷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 교육 전략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폭력, 소외, 착취 등의 문제에 대해 의식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박찬석, 2009). 김선화(2009)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와 동화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보다 '이주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름'이 존중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지구시민교육의 주안점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생들이 북한과 관련된 '다름'에 대해 관용의 태도가 없고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세계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와 공존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기 만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입시경쟁적 교과 일변도 학교교육과 획일적 수업문화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구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과제이다. 이에 선택과 집중의 방법, 즉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아와 인권과 같이 가장 시급한 내용부터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교육문화에서는 지구시민교육에서 자주 활용해야 하는 실천, 토론, 사회적 행동, '논쟁적 공공 이슈'(controversial public issues)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다. 현 국가교육과정에서 지구시민교육은 범교과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각 교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찬옥, 2004). 이와 같은 학교문화의 한계를 인식하면, 한국에서의 지구시민교육은 -적극적인 지구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출발하여 점차 여건을 성숙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민주시민교육을 갱신하는 사회적 조건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갱신된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방향은 오늘날의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변동에 직면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으로, 성인 세대가 성장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은 사회의 축소이며, 교육과정은 사회적 쟁송의 산물이다(Bernstein, 2000). 이론 인해 교육과정은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사회변동의 어떤 측면이 교육과정을 갱신하도록 만드는가 역시 쟁송의 산물이다. 이러한 쟁송에 참여하면서, 나는 오늘날 주요 사회변화 중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교육과정의 갱신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후기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노동시장의 불안정, 고령화 사회 등의 도래에 따른 가능성과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사회적·경제적 차이에 의해 발생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존엄

성을 해치고 있는 현존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사적 이익에 매몰된 메마른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과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여적 시민을 길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다섯째, 세계화된 지구촌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태도와 빈곤 해결, 평화, 인권 신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

이에 따라 나는 오늘날의 사회변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비교육적 관행과 소외를 극복하는 교육
- ② 더 나은 미래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협력적 공동체 교육
- ③ 미래 사회의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 ④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민주적 시민교육

교육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교육이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실현해 나가야 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사회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 어떤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인본주의 사회
-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
- 누구나 예술적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
-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도와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 인간의 삶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사회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정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5. 민주시민교육의 3가지 방향

1) 사회정의 교육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Michael Apple이 그의 최근 저서, <민주적 학교>(Democratic Schools)에서 주장한 '민주적 학교'는 사회정의 교육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마이클 애플에게 민주주의는 단지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가치가 평등하게 승인되는 사회구조의 원리이며 불평등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Nancy Fraser(1997)가 주

장한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인 재분배(redistribution), 승인(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연상케 한다. 실제로 최근 Michael Apple의 저작에도 Fraser의 정의론적 관점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교육사상에서 표방된 학교 모델이 <민주적 학교>라 한다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러한 학교는 진보주의적이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조금 더 풀어 쓴다면 좋은 학교란 토론, 체험, 교사와의 인간적 관계에 기초한 학생중심 교육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불평등, 인간의 존엄성, 소수자들이 대표되도록 하는 사회정의 교육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회정의 교육은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지 탐구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학생이 속한 인종, 젠더, 문화에 대해 가르칠 때 그 정체성이 동등하게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물질적 자원이나 가치의 분배를 결정하는가의 문제, 즉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표 상태가 불평등하다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교육해야 한다.

2) 메리토크라시 극복

경쟁과 차별은 바로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메리토크라시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계급 형성이 미약했던 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쳐 계급 분화를 상당히 구축하였다.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득권을 세습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오늘날 매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최근의 사회변동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유동하는 사회로의 변동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관련이 된다(Bauman, 2000; Beck, 1992). 인구구조의 변화, 규범의 급속한 변화, 비정규직의 양산, 조기은퇴와 그에 따른 자영업의 포화, 청년실업, 1인가구의 증가,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변동이 인간의 일상적, 직업적, 금전적, 윤리적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안의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모크라시 과업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는 가치판단의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기계적으로 합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어떤 사람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인본주의 사회,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회상이라 본다. 더욱이 최근의 사회변동을 고려할 때 위험과 불안은 ‘한 배를 탄’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당면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회과나 도덕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같은 가치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동시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 공동체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참여와 실천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유의미한 타자로부터 모방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데모크라시를 가르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가 민주적인 일상 공간이 되는 일이다.

3) 평등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축

오늘날 학교에 만연한 참여거부 또는 참여기피 - 교실붕괴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의 문제는 인권, 평등, 사회정의, 인정과 같은 주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교실은 하나의 사회조직이다. 그러므로 이 조직의 문화와 그에 따른 역할기대는 심리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는 '수업의 문화' 또는 '수업의 질서'라는 주제로 더 깊이 논의해 볼 수 있다. 교실은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보통 이를 게임에 은유하는데, 한 행위자가 게임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방 행위자가 이를 의미있게 받아들여야만 게임이라는 규범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을 게임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범이 통하는 게임에서 스스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게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과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규범이 통하는 교실사회에서 그냥 이해도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한다면, 그 학생은 이미 게임의 참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이 끝나기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전략 중 하나가 참여기피 - 주로 수업시간에 자는 것- 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도 되는 사람' 또는 '수업방해 하느니 자는 게 나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즉 '투명인간'으로서의 위치에 놓여있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는 문제를 문제시함'에 있어 자는 학생들 편에서, 그리고 그들의 권리옹호 관점에서 수업의 윤리적 질서를 변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는 학생이 없는' 수업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수업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의식적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화두는 바로 도구화된 가치의 전복으로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단지 활성화된 수업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수업소외를 인권, 사회정의, 인정, 권리옹호의 문제로 인식하고 수업 자체가 평등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실문화를 긍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의 윤리적 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 학생도 소외됨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공적 권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수업의 윤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혁신 과제는 수업개선의 소극적 관점을 넘어 평등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공성 관점의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IV. 발표 및 토론 자료 - 종합토론

종합토론

좌장: 이선경(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청주교대 교수)

패널: 안재정(부천 송내고등학교 교사)

박수연(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

제현수(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손동빈(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ESD for 2030, GEDE 우리는 경쟁자인가? 협력자인가?

안재정 (송내고등학교 교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교육 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 현황을 보면 4.7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확대의 차원에서 교사역량 강화, 수업 지원, 예비교사지원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SDGs의 목표 4.7에 대한 한국적 목표 설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 정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위한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출처: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목표가 충분한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대학교 내에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지원하면 SDGs 4.7이 달성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2019년 유네스코 ESD 정책 포럼의 키워드는 ESD for 2030을 준비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vic Education) 그리고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에 대한 관계 설정인 것 같다. 위와 같은 4가지 교육을 GEDE¹⁾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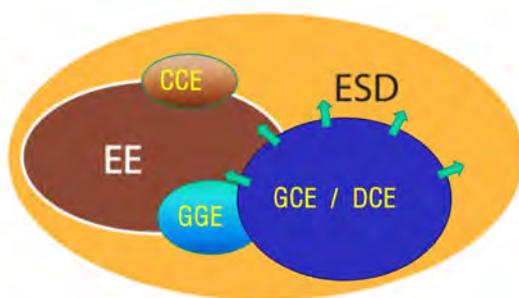


그림 1 교육의 관계와 위치 설정

우리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발제자의 의견처럼 이를 ‘미래’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교육적 합의와 사회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의 대원칙이 합의의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발제자의 원고 제목처럼 민주시민교육이 앞선 두 가지의 교육(ESD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에 동의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영역

1) 계데.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있는 1832년부 자주 폭발하는 활화산 이름이기도 하다. 4개의 용어가 자주 개념적으로 폭발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임.

설정에도 부합하는 표현이다. 즉, 민주주의가 정착 또는 사회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가장 기본 조건으로 이후 ESD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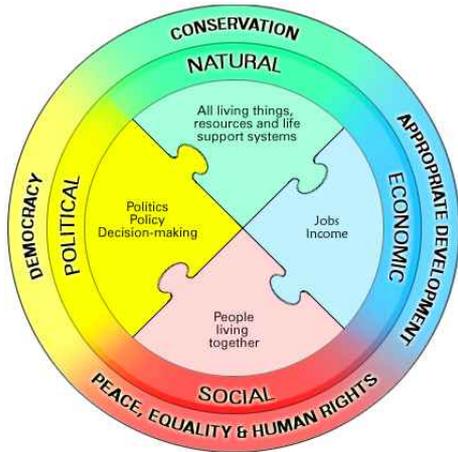


그림 2 지속가능발전의 4영역

표현할 때, 환경, 사회, 경제로 분류하는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제외하는 것처럼 표현된다. 이는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위의 총론적인 개념을 실행을 위한 각론의 개념으로 낮추어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조건 근거를 교육부(2018)가 제시하는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방법에서 찾고자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보편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언급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평가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GEDE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로 생각된다. 지식이 없는 실천은 공허한 외침이다. 실천이 좋아도 지식이 없으면 가치는 통하지 않는다. 물론 그 반대로 성립한다.

우리나라에서 GEDE의 용어에 대해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트렌드를 지난 4년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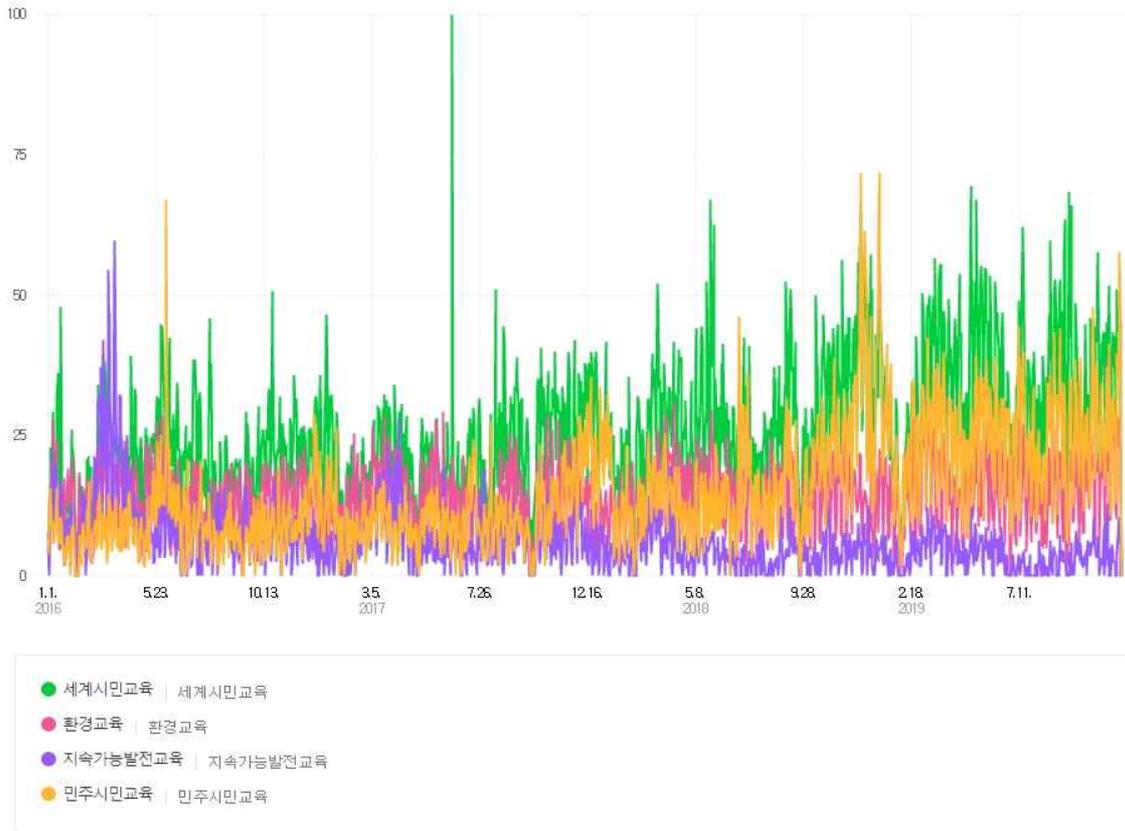


그림 3 네이버 데이터랩(2016.01.01.~2019.11.24.) 검색어 유입량

네이버 데이터랩의 경우 지난 4년간 2016년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2017년 이후부터 민주시민교육이 부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의 경우 큰 변동 없이 3위 정도의 경향성을 보였다.

구글의 경우 네이버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그림 4와 같이 다른 3개의 교육에 비해 환경교육이 확실한 차이를 보이며,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 포털을 이용하는 목적과 이용자의 성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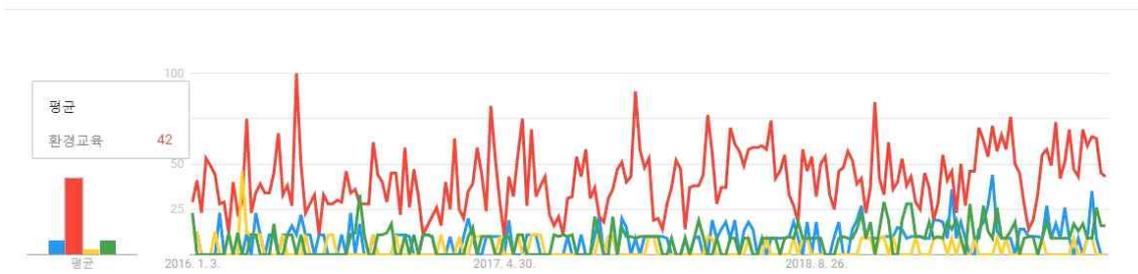


그림 4 구글 트렌드(2016.01.01.~2019.11.24.) 검색어 유입량

단순한 검색어 유입량으로 GEDE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쟁 관계인지, 협력 관계인지가 모호하고, 메리토크라시가 심한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어떤 협력 모델을 끌어내는 것은 계속 조율이 필요하다.

발제자가 언급한 한국 사회의 경쟁과 차별은 바로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그리고 그것

을 떠받치고 있는 메리트크라시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교육계에도 유효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사적으로 ESD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부터 교육현장의 실천 경험을 쌓으며, 성과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ESD for 2030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발제자의 언급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이는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 1> 2015 개정 중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환경과 인간	환경의 의미	환경은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환경관은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의 다양한 의미 •환경관과 나의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관점과 의견 비교하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기
	인간의 환경 영향	인간 활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대한 배려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하고 해석하기 •타인 의견 경청하기
	환경 체험	우리는 체험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맺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과 공감 •학교 환경 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환경의 체계	생태계의 구성과 상호작용	생태계는 인간을 포함한 물, 공기, 흙, 생물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의 의미와 구성 요소 •물, 공기, 흙, 생물 등의 역할과 소중함 •물, 공기, 흙, 생물 등과 인간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영향 분석하기 •해결 방안 도출하기
	환경 문제 및 보전	환경 문제는 생태계 내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환경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우리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문제와 물, 공기, 흙, 생물, 인간 등의 상호작용 •환경 문제와 환경 보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 •환경 문제 해결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에서 의미 도출하기 •실천방안 구상하기 •타인 의견 경청하기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지역 환경 탐구	각 지역은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지역 환경 안에서 살아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환경 이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참여 방식 •지역 환경 탐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 역할, 특징 등) 조사하기 •탐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설명하기
	자원과 에너지	인간이 이용한 자원과 에너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의 이용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이용의 변천과 환경 영향 •자원의 의미와 우리 지역의 자원순환 체계 •에너지 이용에 관한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결 방안 설계하기 •해결 방안과 영향 평가하기
	지구 환경과 환경 문제	지구의 환경 변화는 넓은 시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참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 환경과 지구 환경 문제의 특성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에서 의미 도출하기 •해결 방안 토의, 토론하기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기후 변화	지구의 기후는 변화해왔고 현재도 변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은 기후를 변화시키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지속가능발전의 해석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와 중요성, 필요성 등) 설명하기 조사하기 타인 의견 경청하기 다양한 관점과 의견 비교하기 소통을 통해 합의 하기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현재와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소통과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사회 체제 함께 그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 	
	환경정의와 참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인의 생활양식과 사회 체제의 변화를 이루려면 환경정의의 추구하고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의와 참여 방식 사회 변화를 위한 우리의 참여 	

2015 개정 교육과정 환경 과목의 목표는 학습자가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 환경과 타인을 배려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체계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표 2> 2015 개정 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체계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환경과 인간	환경관	자연, 생태, 환경 개념은 비슷하지만 다르며, 환경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인간의 위상은 달라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생태, 환경의 개념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관점과 의견 비교하기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기 자신의 입장과 견해 제시하기 타인 의견 경청하기 영향 조사하고 추론하기 사례에서 의미 도출하기 발견하고 느낌 표현하기
	환경윤리	환경윤리의 대상은 인간에서 동물을 거쳐 모든 생물, 비생물, 미래 세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복지, 생명윤리, 생태윤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 	
	환경 체험	환경 체험은 자연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신과 지역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적, 직접적인 자연 체험 체험을 통한 지역의 이해 	
환경의 체계	환경 체계의 구성	환경은 사회체계와 생태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계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체계 구성과 상호작용 전통 생태지식과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과 실제 세계를 연결하기 요소 간의 관련성 파악하기 발견하고 열거하기 상호관련성 분석하기 실천방안 수행
	생태계	생태계는 육상·수생 생태계로 나눌 수 있으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계의 특성 생태계의 종류 생태계의 변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환경과 사회체계	환경의 변화는 산업화와 소비사회, 정보화와 지식사회, 다원화, 위험 사회 등 사회체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생산소비사회 •환경권과 환경 갈등 •위험사회와 환경정의 •환경과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기 •영향 조사하고 추론하기 •자료 분석하고 설명하기 •자신의 입장과 견해 제시하기 •타인과 토의하기 •타인의 경험에 공감하기 •해결 방안 도출하기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상호작용	생태계와 사회체계는 물, 토양, 대기, 생물 등 생태계 구성 요소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환경 •토양 환경 •대기 환경 •생물 환경 	
환경 탐구	환경 사례 심층 탐구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환경 사례를 탐구할 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 토양, 대기 환경 사례 •생물 및 생명윤리 환경 사례 •기후 변화와 에너지 환경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구 문제 설정하기 •탐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해결 방안과 영향 평가하기 •사례에서 의미 도출하기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의미와 시사점 발견하기 •해결 방안 도출하기 •의미 토론하기
	생활 주제 환경 탐구	음식, 주거, 교통, 소비는 중요한 생활환경 주제이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관련 환경 주제 •주거 관련 환경 주제 •교통 관련 환경 주제 •소비 관련 환경 주제 	
	환경 프로젝트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프로젝트 학습은 환경 문제와 같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탐색, 문제 설정 •탐구 계획 수립, 역할 분담, 발표 및 평가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체계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과학기술의 양면성, 적정기술 •환경재난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와 중요성, 필요성 등) 설명하기 •시사점 발견하기 •탐색하고 방안 모색하기 •비교하고 견해 제시하기 •합의를 통한 참여하기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을 추구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과 삶의 양식 •녹색 산업과 일자리 •형평성, 참여 	

지난 20여 년간의 학교 교육에서 환경교육 경험치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발전시킬 때 현 한국적 특수성을 극복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2017년부터 ESD 교과중점 학교와 환경학교 운영 사례 등은 시사점을 갖는다.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의 환경교육은 전통적으로 연구학교 중심의 운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동안의 연구학교(에너지 시범학교, 환경보전시범학교, ESD 시범학교 등)가 학생들의 교과 교육과정을 별도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일회성 행사나 단기성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학교 환경교육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꿈꾸는 환경학교’이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이란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로써, 자유수강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 운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을 교과(군)의 경계 없이 학생 선택의 범위를 최대화한 학생중심 개별 교육과정이다.”이다.

이와 관련지어 본교에서는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 운영의 배경은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 보지 못한 환경문제와 같은 환경 요인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요 위험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본연의 특성인 개성과 창의성 신장을 바탕으로 이를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래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과 적응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의 해결 프로세스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환경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미래

박수연(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

2015-2019 UNESCO GAP 네트워크의 성과와 과제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유네스코의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ESD for 2030”에 대한 결의안²⁾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90여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실천프로그램(GAP) 이후의 또 다른 10년의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영RCE 세자트라숲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국제기구, 도시네트워크 사무국 등과 함께 유네스코 국제실천프로그램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통영 RCE 세자트라숲이 속한 PN5는 지역사회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RCE도시를 지정하는 유엔대학을 비롯한 각종 도시네트워크 사무국과 우수 사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간 보고서를 통해 GAP의 5개 우선 영역 각 분야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영RCE가 속한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5,685개의 시민사회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2,390개의 ESD 활동(프로그램)으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³⁾.

통영RCE⁴⁾ 역시 지난 2015년 세자트라숲과 센터를 오픈하고,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 교사,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관광 인프라를 구축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지역사회 시민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전 유치·중고등학교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에 내실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서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통영 RCE의 청소년 ESD 프로젝트인 브릿지 투 더 월드의 도내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선택교과 도입 등 다양한 시도를 도 단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향후 10년에 대한 기대와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 40 C/23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beyond 2019

3) 유네스코 발표자료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 in action-Global Action Programme(GAP) Key Partners’ report(2015-2018)’(2019. 7. 베트남 하노이)

4) RCE: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UN대학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 통영은 국내 첫 번째, 세계 8번째 RCE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에는 통영(2005), 인천(2007), 울주(2011),인제(2013),창원(2015)가 있으며 도봉구가 2019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연대의 강화, 지역사회를 살리는 힘

많은 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가장 첫 번째로 꼽히곤 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유네스코 본부와 통영 RCE 세자트라숲이 함께 개최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심포지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연구소, 유엔 대학교, 국제 강한 도시 네트워크,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탄력 도시 네트워크 등 국제 도시네트워크 대표부와 우수 도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3일간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본 참가자들은 앞으로 ESD for 2030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대의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했으며,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ESD와 연결하여 수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전과제로는 지역사회 관계자들로서 특히 지방정부가 교육 시스템이나 교과과정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ESD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ESD를 형식교육이 도입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ESD를 확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앙정부 차원의 ESD 추진 체계를 갖추고, 그 안에 모든 관계 영역을 하나로 모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첫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과,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그에 적절한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데,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ESD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ES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ESD를 잘 해나가는 한 두 지자체의 사례가 과연 상황도 예산도 사람도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ESD 추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과 ESD 인력양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중앙정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보와 사례가 수도권에만 편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RCE 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평생학습사 양성과정,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ESD를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의 양 날개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각 지역의 목소리와 사례를 담아내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즉 정보공유체계가 마련되고, 학교에서 ESD를 배운 평생학습사와 교사가 지역사회에 배치된다면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넘나드는 지역의 ESD 확산과 이를 통한 SDGs의 실현을 함께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SDGs 이행의 지역화와 지속가능발전교육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SDGs 지역화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UNRISD(UN 사회개발조사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개념을 ‘지역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 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UNRISD, 2017) 특히 SDGs 이행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SDGs의 지역화는 지역, 삶의 현장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고유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며, 변혁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또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며 지역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포용적이며 참여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변혁적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이행 주체 중 하나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성이라는 국제적 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한 지역 기반 민관 거버넌스 조직이다. 지난 20년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활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SDGs 이행에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SDGs 지역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무권 외, 2019)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행위자로서의 시민,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는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량과 경험, 사회적 자본 등을 기초로 하는데 여전히 한계와 간극이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사회의 자치, 분권 수준과도 맞닿아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 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SDGs 이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교육에 대해 평가와 향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해 온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사업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전달하면서도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향후 SDGs 이행을 위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중요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괄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기초-심화-전문 과정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계를 고려하며 설정되어야 한다.(오수길, 2018)’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인식의 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 방식 등, 지역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그 동안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성찰과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를 계기로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거버넌스)의 구축, 지역 인력의 양성,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주요 과제를 논의 중이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SDGs 17개의 목표 중 교육은 단일 목표 (SDG4)인 동시에 SDGs 전체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SDG4 뿐만 아니라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SDGs 시대에 ESD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교육 전반의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이선경, 2018) 이 같은 관점은 지역사회 차원, SDGs 이행의 지역화의 측면에서도 역시 강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간략히 짚어본다. 일단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역량의 확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업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SDGs,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용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축적해 온 경험을 토대로 보다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빈곤퇴치와 사회적 포용성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발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지역사회의 번영과 공정한 기회 등 이른바 지역사회의 변혁을 위한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일상성, 삶의 현장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이라는 고유 목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과정의 특성상 그동안 교육이 특정분야,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들어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영역에서 사회, 경제 영역으로의 확장, 교육과 실천의 통합 등 다방면으로 통합적 관점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함께 교양적 교육, 소양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폭넓게 진행되어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구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도하는 활동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하는 교양적 교육, 소양교육으로의 확장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2019년도 유네스코 ESD 정책포럼 토론

손동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1.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ESD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혁신과의 과학영재정보화교육팀에서 환경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도달할 목표로 ESD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 지도자료(초등3~4학년용 및 중등 1학년용, 학생용, PDF파일)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해양생태계 보존, 지구촌 협력 등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나머지 주제를 다루는 초중등용 각 1종씩 총4종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 ESD관련 정책이 시도교육청 각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ESD를 직접 다루는 부서는 교육혁신과의 과학영재정보화교육팀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SD,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일적으로 유기적으로 정책으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많은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은 칸막이 행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자 자신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고 몰두하다보니 다른 부서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SD,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학자적 주장이 서로 다른 점에서 정책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수용하여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성열관 교수님은 ESD,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ESD에서 미래와 현재의 관계를 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세계시민교육에서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과 전지구적 실천을 더 강조한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제는 이외에도 인권, 평화(통일), 상호문화(다문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화를 강조하지만, 통일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다인종 국가의 경우 상호문화가, 갈등이 심한 경우 평화의 문제가,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인권과 민주주의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들 주제는 개별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공동의 기준에 따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갈 때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

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과 같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과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준하고 입법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이 곧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수용해 내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이자 ESD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독일의 정치교육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일은 전체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전후 최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곧 민주주의 즉 정치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이해할 때, 학교 현장은 이외 다양한 주제를 병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인권은 인권대로, 평화는 평화대로, 상호문화는 상호문화대로 별도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들은 상호 깊은 연관성이 있고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심에 집중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5가지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민주시민교육은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우리교육청은 2015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한 이후 “교복 입은 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체로서 자신의 시민적 삶의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을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시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자신의 방식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 교실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적 가치 세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교육 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주제별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논쟁점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원칙에 따라 무엇에 유의하며 교육해야 하는지 등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교육에 대한 수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 아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명목아래 또 논쟁을 살리겠다는 명목아래 무분별하게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상기시키거나 고통을 야기하는 주장들을 가감없이 노출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거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환대’이다. 난민은 어쩔 수없이 고향을 떠나 온 존재들로 그들의 고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발

적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환대는 우리의 ‘아량’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⁵⁾와 같은 유의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런 점에서 우리교육청이 개발하고 있는 자료는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교육청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에서는 생태, 성평등, 역사, 인권, 청소년, 평화라는 주제를 학교현장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1.5」 중에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여성차별철폐협약”,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역사교과서)에 관한 UN보고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UN 청소년 2030 전략”,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을 해제하고 논쟁점, 교육원칙을 담은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2019)의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료제작을 위한 집필원고(2차검토)” 참고.

[부록]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SDG4-교육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년)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서,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던 유엔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2015년)의 후속사업입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 정상회담에서 유엔은 정부 및 시민사회가 더불어 노력해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들 목표는 세계의 빈곤 증식과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힘써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SDGs는 MDGs가 추구하던 빈곤 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범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 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SDGs는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라는 범주를 추가해, MDGs에서 다루지 않던 폭력이나 분쟁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목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4)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2017/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 4백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SDG4의 취지이며, 이를 위해 7개 성과 목표와 3개 이행 수단을 정했습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ne global education goal by 2030:
10 targets to be reached

The 10 targe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encompass many different aspects of education. Seven targets are of expected outcomes and three are means of achieving these targets

Education
2030 

SDG4의 성과 목표 및 이행 수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의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이행 수단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펴낸날 | 2019년 11월 29일

펴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 김광호

편집 | 조우진, 오혜재, 이선경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 02-6958-4120/4162

전자우편 | esd@unesco.or.kr

한위간행물 등록번호 | ED-2019-DI-12